"혁신도시로 이사 안 가겠다" 44%

■ 나주 이전대상 17개 공공기관 종사자 설문

영어마을 조성·교육시설 확충 최대 과제

나주에 건설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4명은 혁신도시로 이사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2명만이 이사할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대한 가족들과 함께 공동혁신도시로 이주해 '독립자족형 신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영어마을 등과 같은 교육시설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분석됐다.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혁신대회' 부대행사로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동혁신도시 바람직한 조성방안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공동혁신도시 이전 17개 공공기관 종사자(476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주 공동혁신도시로의 이주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4%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19.8%만이 주택을 구입해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공동혁신도시로 직장이 이전됐을 경우, 나주지역(공동혁신도시 포함)에서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가 50.1%를 차지했으며, '구입하겠다'는 의사는 18.2%에 불과했다.

이주시 희망 거주지를 묻는 설문에는 76.7%가 나주(혁신도시 내부+혁신도시 인근)를 선호했지만 광주 거주는 19.6%만이 택해, 이주 예정자들이 새롭게 건설될 혁신도시가 광주 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63·4%로 압도적인 반면 긍정적인 답변은 36·6%에 지나지 않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이주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영어마을 조성이나 교육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광주로의 이주 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19.8%에 불과한 반면 영어마을이 조성될 경우 이주하겠다는 응답자는 46.1%나 됐으며,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과 같은 교육시설이 확충되면 이주하겠다는 응답자도 43.9%에 달했다.

이정록 교수는 "현 설문결과에 따르면 가족 단위 이주 보다는 개인 위주의 이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혁신도시 인구 규모가 하향 조정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족동반 이주를 최대한 늘려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생활환경 개선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립공원 입장료 없앤다

당정 법개정안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환경관련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입장료 폐지로 인한 입장객의 급격한 증가로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제종길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문화공간인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해 연간 2천600만명에 이르는 국립공원 이용객의 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사설

기아차, 연례파업 '고질병' 털고 거듭나라

기아차 노사가 1일 새벽 올해 임단협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고 이날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 지 45일 만이다.

기아차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됐다고는 하나 장기 파업이 남긴 생채기는 너무 크다. 기아차는 이번 파업으로 4만8천862대의 차량을 만들지 못해 7천40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손실을 입었다. 협력업체의 피해까지 합하면 손실액은 1조4천억원대에 이른다. 또 파업의 여파로 지난 8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1.9%나 감소했으며 이는 2004년 1월 이후 3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파업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실이 매년 되풀이된다는 데 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991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 파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되풀이하면서도 어떻게 회사가 건재할 수 있는지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기아차 경영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국내 제조업 평균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이하로 급락했고, 2분기만 놓고 보면 이미 151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기아차 노사는 연례행사가 된 파업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과거 외환위기 단초가 됐던 경영위기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매년 100~150% 성과급을 지급받으면서도 임금 추가 인상을 주장하고 파업을 반복한다면 온전할 회사가 어디 있겠는가. 사측도 투명경영 등으로 원만하고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 난무한 각종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예산안과 국정감사, 민생법안 등의 현안에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바다이야기' 파문, '코드인사' 논란 등 민감한 사안들이 얽혀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구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국회상을 보여주길 바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치우치거나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벌여서는 파행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난장판 국회 등 과거의 부정적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정기국회의 최대 책무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여야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 끝에 법정기일을 수없이 어겨왔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선 법정시한을 넘기거나 졸속심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미뤄서는 안된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는 특히 '바다이야기'와 '낙하산 및 코드인사' 등 최근 제기된 국정 전반의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간접 사과한 '바다이야기'는 의혹만 증폭될 뿐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FTA 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국회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역량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한다.

말기 암환자 유전자 치료 '완치'

흑색종 환자 2명 18개월만에 종양 소멸

美 국립암연구소 발표

암과 면역체계 이상에 대해 연구해온 미국 연구팀이 말기 암환자 2명을 유전자 요법으로 치료하는데 사상 최초로 성공, 암 정복의 꿈에 한발 다가섰다.

미 국립암연구소(NCI) 외과과장 스티븐 로젠버그 박사는 진행성 흑색종 환자 17명에게서 채취한 T림프구라고 불리는 백혈구에 흑색종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 수용체 생산 유전자를 주입한 뒤 운반수단인 바이러스에 실어 다시 환자에 투입한 결과 이 중 2명이 완치돼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밝혔다.

로젠버그 박사는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나머지 15명은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 면역요법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젠버그 박사는 "17명 중 단 2명만 효과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는 일반 T세포를 특정 암세포 공격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열린 광주시의회 의장단 재선거에 참여한 조광향 의원(오른쪽)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아차 임단협 타결

기본급 5.7%인상… 어제부터 정상조업

기아자동차는 1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노사간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임단협 타결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발 더 발전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도 "노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반긴다"며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이같은 파업이 앞으로는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노사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된 23차 본교섭에서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합의내용은 임금협상 부분에서 ▲기본급 7만8천원 인상(5.7%, 호봉승급분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경영목표 성과급 100% ▲하반기 목표달성 성과급 50% ▲생산목표 100% 달성시 150%, 95% 달성시 100%, 90%를 달성하면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체협상 부분에서는 ▲선천적 장애 자녀 외래 진료시 병원비 지원 ▲치료목적의 불가피한 성형 및 치과관련 질환 병원비 지원 ▲수유시간 1일 120분으로 확대 ▲만 40세 이상 종업원 종합검진 주기 3년으로 단축 ▲혹서기 기간연장 등이다.

기아차 노사는 5일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올해 임단협 협상을 완전 타결할 예정이며 1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정상조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자동차 노사는 "파업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제부터는 정상조업 재개와 함께 노사가 합심해 총력생산에 매진함으로써 조기 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품질과 고객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시의회 파행 일단락

법원 화해권고 받아들여
투표로 강박원의장 재신임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공방까지 벌였던 광주시의회 파행이 일단락됐다.

광주시의회는 1일 오전 제15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 현 강박원 의장에 대한 신임과 나종천 의원의 선출을 놓고 투표를 실시해 강 의장을 재신임했다.

전체 의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 투표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현 강박원 의장이 10표로 과반수 이상을 얻어 9표에 그친 나종천 의원을 눌렀다.

또 4명의 후보가 출마한 부의장 재선거는 주류측에서 지원한 김후진·이철원 의원이 당초대로 당선됐으며, 강 의장의 신임 투표 통과로 지난 7월12일 선임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5대 의회 출범부터 의장과 부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놓고 의원들간 양분된 광주시의회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비주류 의원 9명도 본회의에 앞서 '의장선거 재실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합법적인 선거만 치러진다면 모든 것을 수용해 받아들일 것"이라며 "지난 날의 반목과 대립을 털어내고 화합하는 의정, 생산적인 의정에 전력 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비주류측 의원들의 '의장단과 위원장단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현 의장을 그대로 신임할 것인지 아니면 의장 선거를 위한 정견발언을 신청한 나종천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임할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 등 4개항의 화해권고안을 지난 달 25일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운전면허증 재교부 기간

경찰청, 7일 이내로 단축

경찰청은 지금까지 15일 안팎이었던 운전면허증 재교부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진자료 전산송부 등을 통해 재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새 절차를 전국 234개 경찰서 전체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며 "올해 6~7월 25개 경찰서에서 이뤄진 시범 실시에서는 재발급 기간이 평균 4.5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부채 도민 1인당 4만원

전남도의 지난해 실질 채무는 모두 811억원으로 도민 1인당 4만원 꼴인 것으로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5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2005년도 도의 살림규모는 모두 3조8천259억원이로 자체수입 5천538억원, 중앙 의존재원 2조3천178억원이었다.

채무는 재해복구 사업 및 탐진댐 건설사업 이주민 지원 등 6천277억원이었지만 지역개발기금 채무가 5천466억원이 포함돼 실질채무는 811억원으로 도민 1인당 4만원 꼴로 집계됐다.

공유재산은 전남도 신청사 등 2천353억원 어치를 취득하고 순천시 소재 생활용수 공급사업소 등 1천481억원 어치를 매각해 잔액은 8천25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추진비는 2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원이,행사·축전 경비는 4천714억원으로 전년도(3천559억원)보다 1천15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프로필/

평생교육·사회교육 연구 사회학계 원로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구해 온 교육사회학계의 원로 교수다. 서울여대와 서울대에서 40년간 후학을 키우고 한국사회교육학회장, 한국평생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술 및 교육 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현재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행정 관리 경험이나 보직 경험이 별로 없는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에서 찬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논의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무한학력경쟁을 유발하는 평가방식은 지양하되 학과별 책임전형제, 고교학력 고사, 다단계 입학사정, 전형자료의 복합적 활용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대학 및 학과별 자율 선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 청주(65) ▲청주고 ▲서울대 교육학과 학부 및 대학원 ▲미국 피츠버그대 교육학 박사 ▲서울여대 부교수 ▲서울대 사범대 교수 ▲한국사회교육학회장 ▲한국평생교육학회장 ▲서울대 교육연구소장 ▲한국교육학회장(현)

빛日만평

- 김종두

이땅에 '괴물'이 있긴 있구나

남자 192명·여자 25명… 20대 155명 최다

광주·전남 우주인 지원자 현황

2일 광주를 비롯, 서울·부산·대전·강릉·제주 등 전국 6곳에서 3.5㎞ 달리기를 시작으로 한국 최초의 우주인 선발이 시작된다. 광주·전남 지역 지원자 현황과 선발 과정을 살펴본다.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2일 광주과기원 도로에서 체력테스트를 치르는 광주·전남지역 지원자는 남자 192명·여자 25명 등 모두 217명.

이들 중 20대가 155명(72%)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54명(25%)으로 뒤를 이었고, 40대 7명(3%)·50대 1명순이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중인 지원자가 98명(46%)로 많았고, 대학 졸업자는 68명, 고졸 12명·전문대졸 20명·석사 15명(수료 포함)·박사 4명(수료 포함)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108명·전문가 26명·기술공 9명·군인 5명·사무종사자 20명 등이었다.

우주인 선발과정은 모두 4단계로 이뤄지며 최종 2명이 선발된다. 이들 2명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훈련센터에서 어학·이론교육·국제우주정거장 및 소유즈 우주선 모의훈련, 의학훈련, 체력훈련, 무중력 적응훈련 등 우주 적응훈련과 함께 우주과학 실험 수행을 위한 임무 수행을 받는다. 최종 후보 2명 중 1명만이 2008년 4월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에 탑승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